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 해 무려 38명이 사망 하고,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. 이날 오후 1시 32분께 냉동·냉장 물류창고 신축현장 지하 2층 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은 천장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다.

이번 화재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공정 전반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이 지목됐다. 공기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은 물론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산소용접 작업 시 별다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.

또한 비상유도등,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, 비상경보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. 이밖에도 방화문 설치 공간이 벽돌로 폐쇄돼 대피로가 차단됐으며, 화재 예방이나 비상대피교육 등이 실시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.

한편 이 참사를 계기로 ▲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▲작업 중 안전조치 대폭 강화 ▲건축자재 안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‘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’이 수립됐다. 아울러 건설참여자의 건설 단계별 안전책무 분담을 골자로 하는 ‘건설안전특별법’이 국회에 제출됐다.